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2면)

채승우·박지효 송파구의원 성동구치소 개발 간담회

개발 취지 부합토록 활용해야
원안 이행·투명성 촉구

송파구의원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과 박지효 의원(국민의힘·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10월 19일(월)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택공급 계획과 업무시설용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주민들에게 제시된 주택공급 계획의 이행 여부와 업무시설용지에 추진되는 시나어 레지던스의 적정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민들은 임대주택 1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당초 계획을 이행하고 업무시설용지 역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발 취지에 부합하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가락오금문정주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정치인·관공



10월 19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계획 변경 우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안 이행 및 소용 방안을 논의 중인 송파구의원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

서 주재 회의 정례회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활동 사항 공개 △현 가락2동주민센터 부지 활용방안 공개 등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 앞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원안 이행을 촉구하는 현장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했다.

박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

고 말했다.

채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니라 가락동 일대의 주거환경과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와 당초 약속이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